

# 技術産業社會 속의 大學과 그 問題性

李 光 周

(全州大 社會教育科)

대중사회와 산업문명의 양상들은 교육의 쇠신, 특히 高等教育의 일대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니, 바야흐로 우리들은 이른바 ‘大學革命’의 와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혁명의 實體는 무엇이며 그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에 관해 知識社會學的 접근방법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

## 1. 전환시대와 ‘大學革命’의 도래

오늘날 우리들은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로부터 산업화사회로의 변화에 이은 고도 기술사회로의 진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친 거대한 변혁으로 우리들을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변혁은 당연히 전통적 가치체계의 전환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난날의 유교 윤리나 근대적 시민의 敎養理念의 기초 위에 이루어진 의식구조와 행동양식은 바야흐로 일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르는 정신적, 知的 상부구조의 불가피한 변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을 둘러싼 전면적 상황 변화는 당연히 교육체계의 대개편을 필연적인 과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이야말로 그 제도나 이념에 있어 한 사회, 한 국가의 현실을 가장 명백히 반영하는 동시에 또 그것이 志向하는 바를 잘 상징하여 주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래 서서히 그리고 우리들에 있어서도 광복 이후 특히 1960년대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거센 박진력을 지니며 현실로 다가선 대중사회의 제현상과 테크놀러지의 산업문명의 양상은 교육의 쇠신,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의 일대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니, 리이스만(D. Riesman)이 적절히 표현한 바 우리들은 바야흐로 ‘大學革命(The Academic Revolution)’의 와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대학혁명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에 관해 知識社會學的 접근방법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전통적 大學의 理念

오늘날 바야흐로 현실적 과제로서 우리와 맞서고 있는 대학혁명에 관해 논하기에 앞서 우선 전통적 대학의 이념과 그 역사적 과정에 관해 회고해 보자.

원래 대학은 유럽에 있어 12 세기에 '순수한 學徒들의 자유로운 組合' 으로서 성립되었다. 그런데 대학 탄생의 계기가 된 것은 그리스도교적 중세 속에서도 敎을 위한 도그마나 혹은 국가 및 사회·경제적 效用性을 위한 것도 아닌 순수한 지식에의 사랑과 인식에의 의지, 다시 말하면 學知에의 열정이었다. 이 순수한 인식 의지야말로 시대적 변천에 뒤따른 대학의 갖가지 변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본질을 이룬 지도이념이 아니었던가. 대학이 국가 권력이나 敎회의 권위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법인단체(Corporation)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와 '학문연구(Studium)' 를 놀랍게도 유럽 세계의 보편적인 힘으로서 로마교황의 '敎權' 과 더불어 높은 그 권위도 대학이 어떠한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고 오직 진리에 대한 인식 의지에 그 존재이유를 찾은 데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본질은 한편 또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을 배출하였다. 東西 어느 사회에서나 學知의 소유자로서의 學識者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전통사회의 士大夫階層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과 지식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계층사회 속에서 세습적인 통치 엘리트이기도 했다. 그만큼 그들의 학식은 그들이 속한 계층의 의식구조나 행동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배출한 지식인은 그 자신의 출신 계층이 무엇이건 그는 순수 인식자로서 자유로이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아카데미의 學徒(academicus)' 로서 자각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학과 大學人像의 참모습은 16 세기 절대주의 국가의 형성 속에서도 슬기롭게 옹호되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권력 밑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본능은 대학을 자치적 단체로부터 점차 국가 기능적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유(자치)의 문제는 근세 대학이 맞선 큰 시련으로서 나타났다. 이때 독일의 철학자 볼프(ch. Wolff)는 학문의 연구는 연구하는 자의 양심과 책임 이외의 어떠한 구속에서도 자유로와야 한다는 '철학하는 자유(Libertas philosophandi)' 를 주장하였으니 이 '철학의 자유' 는 시대를 거듭하면서 보다 더 확대되어 '교수의 자유(Lehrfreiheit)' 및 '사상의

자유(Denkfreiheit)' 로서 발전하였으며, 이 이념은 17·8 세기의 관료국가에 의한 교육의 독점시대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추구되었다. 국가가 대학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 부강에 도움이 되는 有用性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필요에 의해 요청된 '전문' 지식과 직업교육 사상이 풍미한 이 세기는 大學史上 대학 본래의 정신이 가장 침체한 시대로서 기록된다. 행정학과 경제학을 비롯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학(Geschäfts wissenschaft)' 이 대두되고 각계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과대학이 새로이 세워진 것도 이 시대였다.

대학은 이제 순수한 학도들의 자율적 배움터가 아니라 국가·사회에 기능하는 학식과 기술의 傳授場이 되었다. 17·8 세기는 이렇듯 유럽 사상 일찌기 없었던 국가 권력에 의한 대학 지배의 시대이다. 그리하여 순수 학문 연구의 장은 대학 아닌 아카데미로 옮겨져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비롯한 많은 아카데미가 유럽 여러 지역에 세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주의적 사조 속에서도 철학이 점차 학문 중의 학문으로서 인식되고 哲學部가 대학의 중심 학부가 되었다. 이러한 대학의 새로운 출발은 1810 년에 창설된 최초의 근대적 대학이라고 하는 베를린대학에서 이루어졌다. 동대학의 지도이념인 '대학의 자유(akademische Freiheit)' 는 인문주의 사상가인 훔볼트(W. von Humboldt)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는 '철학으로서의 학문에 의한 敎養' 을 강조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길을 학문하는 자의 내면적 '고독' 과 '자유' 속에서 찾았다. 全人的 敎養의 형성을 지향하는 훔볼트의 새로운 大學像은 이상주의적 관념철학에 뒷받침되고, 지식과 학문의 통합적 인식과 특창적 사유로서 이루어진 그 성과는 독일의 학문을 세계 정상에 끌어올려 점차 각국의 대학이 베를린대학을 모범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철학적 두뇌' 만을 내세우면서 '빵을 위한 학자' 를 배척한 훔볼트의 대학이념은 교양을 위한 교양, 학문을 위한 학문, 일부 엘리트의 대학이라는 한계를 점차 드러내어 20 세기의 산업사회가 창출한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 현대의 기술산업사회와 대중민주

주의는 당연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요구하기 마련이었으니 대학은 그 역사상 유례 없는 변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 3. 현대 대학의 大衆化現象

현대를 특징 짓는 것은 고도의 기술산업화 현상과 대중사회적 상황이다. 대학은 그가 맞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중세적인 칼리지나 근대적인 유니버시티와는 그 이념과 조직 및 체제에 있어서 지극히 성격을 달리하는 일대 변혁을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른바 ‘멀티버시티(multiversity)’의 출현이다.

이 멀티버시티는 중세 대학이나 근대적 대학과는 달리 대학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대두되고 발전되었다기보다도 대학 밖의 사회 세력에 의해 출현되었다. 오늘날의 대학혁명은 대학인의 뜻에 반하여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인이란 본질적으로 뉴우먼(J.H. Newman)이 지적한 바 ‘보편적 교양인’이거늘 새로운 형태의 대학은 지난날의 대학인이 쌓아올린 교양체계의 극복과 파괴 위에 구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하여 일어났던가.

지난날의 대학은 전통적 신분사회를 반영한 일부 엘리트의 대학이었다. 대학의 敎養主義와 전문교육은 그들 엘리트층의 사회적 품위와 지배를 위한 것이었으며 대학의 학위 증서는 바로 계층사회의 사회적 지위의 징표로서 행세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신분사회를 붕괴시키고 균등한 사람들의 사회 즉 大衆社會를 창출하였으니 이 대중사회의 출현은 소수 엘리트층의 독점으로부터 문화를 대중에게 개방하였다. 그리고 개방된 문화는 당연히 종래의 문화 개념과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대학이 문화의 창조적 場일진데 대학은 이제 사회의 ‘대중화’ 현상에 발을 맞추어 그 이념과 조직 및 체제에 일대 수정을 가함은 물론 대학 자체의 대중화를 기하여야 하게 되었으니, 대학혁명의 제문제는 중산층 출신의 진학의 일반화에 이어 1950년대 이후 서민층 출신의 대학 진학에 의해 촉진된 대학의 대중화현상과 깊이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 대학은 오늘날 엄청난 학생을 지닌 대량

생산 교육의 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학생은 대중학생(mass student)으로 불리워지고, 이러한 지칭은 학생이 과거와 같은 일부 有産階層 출신도 또 선택된 소수도 아님을 나타내고 분자 그대로 대중의 한 사람임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엄청나게 증대된 학생수에서 우선 드러난다. 1960년대 후반기(이 시기는 대학혁명의 상징적 사건으로서의 스튜던트 파워운동이 선진 제국에서 일어난 때였다)에 있어서의 대학생과 해당 연령 인구 비율은 미국 46.6%, 영국 12.6%, 프랑스 13%, 서독 8.7%, 日本 16.7% 등이다. 미국의 경우 1770년대에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50인에 1인 미만이었다. 그리고 그들 진학자의 반 이상이 졸업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60년 대말에는 50%에 달한다. 심지어 1968년의 경우 1주만에 하나꼴로 대학이 세워졌다. 이러한 비대화현상은 보수적 계층사회의 성격이 강하여 高學歴者 즉 엘리트 출신이라는 전통이 짙은 서유럽에서도 동일하였다. 즉 프랑스의 경우 대학생수는 1900년대에 5천 명, 1920년대에는 4만 5천 명을 헤아렸던 것이 1960년대 후반에는 60만 명으로 증대되었다.

서독의 대부분의 대학은 1920년대 후반에 있어 대체로 2천 명 안팎의 학생을 헤아렸던 것이 '60년대 후반에는 저마다 약 1만 5천 명 안팎의 학생을 지니게 된다. 현대사회가 맞서고 있는 제문제 중에서도 인구 증가현상은 가장 위기적 상황을 드러내어 다른 모든 문제가 인구문제와 깊이 관련되고 파생되었듯이 학생의 폭발적 증대에 따르는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대학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그러면 대중화 문제를 둘러싼 대학의 변질은 어떠한가. 대학이 지난날 순수인식의 장으로서 자유와 自治를 모토로 하였을 때 그것은 국가나 사회의 현실세계와는 담을 쌓은 學者共和國, 이른바 象牙塔으로서 불리웠다. 그러나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바로 사회에 연결된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수용을, 다시 말하여 자본주의 체제와 고도 기술산업사회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를 대학에 요구한다. 그리하여 이제 멀티버시티의 핵심은 기술과 산업을 구조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지식과 전문인재를 개발하는 제영역에 주

어진다. 지난날 그리스도교적 중세에 있어서는 神學部가, 교양 제일주의를 신조로 한 근대 대학에서는 철학부가 중심학부였듯이 오늘날 대학의 중추신경은 산업—공학부이다. 이러한 현대적 대학의 출발에 앞장선 것은 프라그마티즘의 나라 미국이었다. 이제 우리들은 미국에서의 새로운 大學像의 형성과정을 통해 현대 대학의 실상을 생각해 보자.

#### 4. 멀티버시티와 技術産業社會

‘빵을 위한 학문’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신학부·철학부·법학부 및 의학부 이외의 어떠한 학부의 증설도 배제한 유럽 대학과는 달리 미국은 1862년 모릴(morill)법을 통해 농업과 공업 교육에 중점을 둔 많은 州立大學을 설립하여 미국 산업과 서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릴법은 “지난날 무시되어 온 광범위한 영역을 교육과 결부시켰다. 대학에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고 더욱 활동적인 것으로 하였다”라고 당시 평가되었거니와 그것은 유럽에 훨씬 앞서서 미국 대학에 공학부와 농학부 등 응용학부를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근대화의 초석을 쌓아올렸다. 이미 1788년에 유럽의 전통적 대학과는 다른 형태의 聯邦大學을 구상한 러슈(B. Rush)는 다음과 같이 말할 바 있다.

“이 연방대학안이 채용되면 합중국을 황금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유럽의 교육은 파르미라의 유적이거나 헤라클레스의 故事에 관한 강의, 헤브라이어의 종지부나 그리스어의 전치사, 라틴어 낱의 발음이나 長短에 관해서 부질없는 논의만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청년들은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가난을 없애고, 인구를 증대하고 知性을 높이며 가정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행복을 초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배울 것이다.”

연방대학안은 실현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강조한 실용주의 정신은 점차 미국 대학의 지도이념이 된다. 미국에서도 19세기 후반에 있어서조차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신학부·의학부·공

학부는 학생의 부족에 시달렸다. 고등교육 즉 교양과목(liberal arts)이라는 유럽 대학의 전통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미국 대학이 전문적 학술연구 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은 대체로 1880년 이후에 속한다. 고등교육에 있어 유럽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미국 대학의 근대화는 미국이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였으니 공업입국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확대와 다양화 및 대중화현상이 진전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학의 근대화는 미국의 경우 특히 기술산업사회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노선에서 취하여졌다. 그 예로서, 우리들은 하바드대학의 경영학부, 콜롬비아대학의 약학부·저어널리즘학부·건축학부, 위스콘신대학의 상학부·의학부·도서관학부·저어널리즘학부의 증설을 들 수 있으며, MIT와 우스터 종합기술학원은 하바드와 콜롬비아의 응용과학부와 더불어 이미 19세기 후반에 설립되었었다.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미국 대학의 대표적 예는 민중의 대학을 표방하며 공학부를 중심으로 창건된 뉴욕의 코넬대학이다. 동대학에서는 공학 분야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제1차 대전 뒤에는 가정학부·교육학부·영양학부·간호학부·경영 행정학부·산업 노동관계학부, 그리고 제2차 대전 뒤에는 호텔경영학부를 신설하였다. 한편 고도 기술산업시대의 대표적 대학으로서 오늘날 그 학문연구의 수준에서 미국 제일을 자랑하는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은 1861년 발족된 이래 실제 사회와 결부된 각종 고도기술의 개발에 선구적 역할을 다하여 사회공학부를 비롯하여 경영학부, 인문사회학부도 명성이 높다. 미국 대학의 실용주의적 경향은 중산층 출신의 대학 진학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반화되고 그리고 여성과 黑人의 모습도 캠퍼스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제2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선 1930년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하였다. 미국에 근대 과학과 의학교육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교육학자인 플렉스너(A. Flexner)는 당시 이같이 말하였다. “대학은 사회로부터 유리된 어떤 역사적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그가 놓인 시대의 표현이며 현재와 미래에 작동하는 하나의 영향력이다.” 그는 이어 대학은 이제 그 이념에서나 조직과 제도에 있어서 구조

적 변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니 “생산과정의 기계화, 조직화, 비인격화 등이 경제적 및 정신적 財貨의 생산을 지배하는” 산업사회의 추세에 민감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실 미국의 대학은 세계의 다른 대학에 앞서 ‘응용’ 연구에 주력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이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과학적인 것과 순수이성적인(rational) 것과의 구별이라는 종래의 학문과 지식의 개념에 수정을 가함으로써 대학과 사회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는 미국 부강의 길을 선도하였다. 뉴딜 정책의 성취뿐만 아니라 1940년대 이래 세계에서 미국의 우위도 고도 기술산업화 사회 실현에 선구적 역할을 다한 미국형 대학의 존재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캘리포니아대학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0만 학생과 4만을 넘는 구성원, 1백 개소 이상에 걸친 활동, 몇 개의 분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특수 연구소와 실험장, 50개국 이상에 걸친 회의에서의 플랜, 그리고 1만에 가까운 講座. 이 멀티버시티, 즉 多元大學이야말로 산업문명을 주도하는 미국형 대학이며 그것은 미상불 두뇌의 거리, 知能都市(ideopolis)이다. 그것은 대학인 동시에 연구소 집단, 직업훈련소, 교원양성소, 사회사업 및 사회운동의 추진기관, 그리고 스포츠 센터, 서서비스 센터이기도 하다. 이러한 다원대학의 복합적 성격은 이제 캠퍼스의 담을 없애고 州立大學의 경계는 바로 州의 경계라고 할 만큼 그 영역은 무한대로 넓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의 체제 편성 특히 學外者에 의한 대학관리(lay government)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産學協同·官學協同 등을 비롯한 대학의 사회적 확대는 대학에 대한 公權力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니 私立의 경우에는 졸업생·기부자·재단·연방정부기관·직업단체·기업, 公立의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州 재무부·지사·의회 그리고 농업조합·동업조합·學區주민 등이 제각기 대학 운영에 개입하여 學外者 理事會제도가 마련된다. 다원대학의 잡다한 성격에 대해서는 학내외의 비판의 소리가 높다. 학부 학생의 지도에 대해서는 개인지도와 自修를 통한 일반교양을 중시하는 영국의 칼리지제도를 요구하는 의견, 대

학원과 연구에 관해서는 독일적 방식을 본받자는 소리, 법학과 의학을 제외한 그 밖의 전문교육 및 제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식으로 나아가자는 여론 등이 있다. 그러면 대학 전체의 불안정한 균형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교육 개혁자인 카아(C. Kerr)가 지적하였듯이 다원대학은 모순에 찬 조직이다. 그 모순은 특히 대학목적의 불투명함에서 연유되었다고 할 것이니 명확한 이념의 결여야말로 학문연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대학기구에서 큰 권한을 주장하는 부조리를 낳았고, 리이스만이 지적한 바 대학인 자신 속에 실업계의 기준을 스스로에 적용시키는 나쁜 경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학 이념의 결여는 또 대학으로 하여금 기업의 방대한 요청에 의해 움직이게 하고 기업에 의한 대학 지배의 위협을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은 때로는 노예와 같이 사회에 순응하고 봉사하는가 하면, 또 때로는 지나치게 대학 밖의 모든 일에 관여한다. 지난날의 대학에는 공통의 비전이 존재하여 그것이 학생과 교수간의 유대를 돈독케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 특징적인 正體意識 내지 일체감의 결여가 대학에 있어서처럼 심각한 예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보편적 이념과 인간적 일체감의 결여는 교수를 위시한 대학 구성원 전체에 刻印되어 있거니와 그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학생이다. 이제 우리들은 1970년 전후의 학생운동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통해 현대 대학의 실상을 생각해 보자.

## 5. 1968년 5월 學生반란의 의미

1968년 5월의 프랑스 학생봉기를 절정으로 '70년 전후에 서유럽과 미국 및 일본에서 일어난 일련의 격렬한 학생운동은 ‘학생 혁명’, ‘청년 반란’ 혹은 ‘학생 권력’으로서 일컬어지는 만큼 그 이전의 학생운동과는 전혀 다른 文明史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학생운동이 '70년대 전후에 한결같이 선진 산업사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곧 대중화사회와 고도 산업사회에 대한 규탄의 의미를 짚게 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 학생들의 표적의 초점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되

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미국 대학과 미국형 대학의 세계적 파급은 현대 대학의 특징을, 오늘날의 사회 그대로 대중화현상과 기술산업화로의 傾斜에 두고 있다. 대학은 사회를 반영하고 표현하거나와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대학 체험을 통해 대학과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病理現象을 인식하였다. 그만큼 오늘날 대학과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일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心情的 윤리와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憧憬의 세대인 학생들은 교수들을 포함한 舊世代의 어느 집단도 感知하지 못하였던 현대에서의 대학과 사회의 심층적 결함에 대해 본질적인 인식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생 반항의 첫째 대상은 대학의 대중화현상이 물고 온 제문제에 대해서였다. 5월 반란의 진원지가 된 파리대학의 경우 학생수는 15만 7천 명으로 소르본느의 문학부만도 4만 명에 달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11시에 시작되는 강의를 위해 8시에는 교실에 들어가야 했다. 대강당에 3천 명의 학생을 수용하여 행해지는 강의도 있다. 교수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끝내면 곧바로 나가버린다. 학생수의 기하 급수적 증대에 따르는 교육의 악조건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인간부재의 소외현상이다. 교수와 학생간에는 물론 학생들끼리의 대화도 바랄 수 없다. 고독한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의 학생과 교수들. 지난날의 대학은 동업자 의식을 지닌 교수와 대체로 동일한 신분과 비슷한 자질을 갖고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의 공동체였다. 그러나 현대 대학은 갖가지 계층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질의 차등도 심하며 진로도 저마다 달리한다. 말하자면, 비동질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의 집단이다. 그리고 특히 일정한 지도이념이나 명확한 목적의식의 결여와 개별적인 특수전문과학이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지도력을 배제하면서 사회 기능적 연구만을 앞세우는 작태는 더욱더 대학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소외현상을 조작한다. 1968년 5월의 학생들은 함께 어깨등무를 하며 구호를 외친 데모 대열 속에서 오랫동안 잊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존재감을 실감하였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운동을 가리켜 정치 투쟁이 아닌

‘문명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현대 대학과 그것이 발전시킨 현대 문명의 실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화현상과 함께 고도 기술산업에의 과도한 경사는 현대 사회와 대학의 또 하나의 특징이거나와 학생들의 위기의식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고조되었다. 대학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의 개발에 몰두한 결과 교육 부재의 ‘실용을 위한 지식’의 장이 되었다. 그리하여 교수는 자기의 전공에만 관심을 갖는 전문가가 되고 학생들 또한 전문가가 되고자 대학에 들어온다. 저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모여든 규범이 없고, 가치의 무정부적 상태를 날로 드러내고 있는 오늘날 대학의 현실은 마치 개인적 욕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산업도시의 모습과도 같다. 사실 현대 대학은 궁극적으로 기술 산업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학내의 서열이 뒤바뀌어져 종래 대학 중의 대학이던 인문대학에 대신하여 공과대학과 경상대학이 우월성을 확보한다.

현대 대학의 이러한 성격은 教授像과 특히 대학 총장의 이미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총장은 교육자나 연구자이기에 앞서 조정자, 정치외교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탁월한 경영자여야 하며 多重人格者이어야 한다. 원래 대학은 학문적 僧院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전문적 학문연구를 주요한 과제로 하였던 근대 대학에 있어서도 연구·교양 및 사회적 기능은 슬기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생산성 개발에 대한 일면적 몰두와 그로 인한 교육 부재와 인간 소외현상으로 점적된 오늘날 대학의 현실을 생각할 때 '70년대 전후의 학생운동은 가히 인간해방을 위한 문명사적 의의를 지녔다고 할 것이다.

## 6. 대학의 ‘存在理由’를 찾아서

이상으로 우리들은 현대 대학의 특징과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하였다.

대학의 대중화현상은 갖가지의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서민층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오늘날의 대중사회, 대중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고 있음은 실로 획기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산업사회의 현실과 과학의 진보에 대체하여 새로운 연구체제를 갖춘 오늘날 대학이 성취한 갖가지의 현대사적 업적(복지사회의 실현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 상상조차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정당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의 수레 바퀴가 바꾸어지지 않는 한 사회의 대중화와 산업화현상은 날로 심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대학은 더욱더 전문과학 연구의 장으로 화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각종 연구기관이 대학을 앞질러 기술 개발을 이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구소의 집단지로 화한 감이 없지 않은 대학은 그 存在理由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전통적인 學知의 해체를 정력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데리다(J. Derrida)도 현대에서의 대학의 '근거울(principe de raison)'에 관해 묻고 있거니와 우리들은 현대 대학의 존재의 정당성, 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명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오늘날의 대학은 무엇을 향한

대학이어야 할 것인가. 제과학의 전문화가 날로 '기술' 전문화로 치달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전문지식의 空洞化를 막는 길은 무엇일까. 전문 지식으로 하여 인간세계의 제사실의 관련의 자각과 인식을 가능케 할 철학을 비롯한 인간의 學知로서의 인문과학 내지 교양과학의 복원은 영영 불가능할 것인가. 철학도 단지 추상적, 인식론적 형태가 아닌 바로 과학적 연구 속에서 묻게 되는 이 反哲學的 시대에 대학의 자율성을 전문 직업적 목적을 지니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하여 순수이성적 學知의 영역인 철학부에서 찾음으로써 대학의 인간 중심주의를 기대함은 반시대적 白日夢이라고 할 것인가. 상황이 원리를 규제하지 않고 원리가 상황을 규제하여야 할진데 '사람은 단지 입장을 지닐 뿐만 아니라 사상도 지녀야 한다(Mann muss nicht nur Standpunkte, sondern auch Gedanken haben!)'는 니이체의 한 구절이 우리들 大學人에게 절실한 음미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